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101호_발행일: 2004년 10월 24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_02-416-5181_www.pcltv.org

기사제보: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새가족헌영의날

65명 새가족, 먹고 웃으며 주님의 가족됨을 느껴



지난 10월 16일 오후6시에 소년부실에서 새가족모임을 수료한 분들을 비롯하여 7-9월에 등록한 장년새가족을 초대하여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장년 새가족 65명을 비롯하여 교역자와 교구리더 및 구역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식탁교제를 나누었다. 식사 후 신영숙집사의 사회로 이병식장로(양육위원장)의 기도과 박호길장로(새가족

작사역팀장)의 환영인사, 병원찬양팀의 찬양과 서로를 축복하는 노래, 새가족(김영훈, 이덕선성도)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다. 이어서 담임목사님이 주님의교회의 정체성, 비전과 목표를 소개하여 주었다. 교회건물 무소유를 넘어 공동체적 교회를 세우는 것과 50대50원칙을 살리며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려는 비전에 대하여,

주님의교회들을 분가하고, 번식하는 비전에 대하여 들으며 교회의 비전에 새가족들도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소년부, 양화진의 복음시초를 찾아

소년부는 10월 17일 주일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하에 양화진 방문과 선교대회(24일)를 준비하였다.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이고, 명칭은 서울외국인묘지공원으로서 17일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지하철을 이용해 학생들과 교사들은 양화진으로 이동하였다.

공과공부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배우고 방문하였기에 안내자의 설명이 더 잘 이해되었고 양화진의 역사와 선교사의 입국경위 등 우리나라의 신앙의 뿌리를 알기위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2면에서 계속)

봉사의 땀가는 기쁨

국수봉사자 위로회 목요저녁 열려

지난 10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주방봉사부가 한곳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70-80명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봉사의 기쁨과 어려운 점을 나누었다. 토요일 장을 보고, 주일 쓸 재료를 사서 다듬는 일부터 시작되는 주방봉사는 연령과 직분을 가리지 않는다. (2면에서 계속)



양육클래스 반장 모임

같은 일을 맡은 '반장' 들이 한자리에

10월 18일 주일 낮 12시 40분 4층 소회의실에서 양육클래스 반장 모임이 있었다. 양육사역팀은 우리 교회 양육클래스의 기획, 조정, 운영하는 일을 맡고 있다. 양육클래스에서 반을 운영하느라 같은 일을 맡아 하는 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9월 12일 ~ 12월 11일까지 12주 동안의 학사일정과 클래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우리 교회 성도는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안내하라고 했다. 필수과목은 새가족 성경공부, 제자의 삶, 리더 훈련반이다. 그동안 양육클래스에서 불편했던 점과 건의 해야할 점을 내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많은 반장이 화이트보드에 필요하다고 신청했다. 반별로 앞으로 남은 수업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한 후 헤어졌다.

수요강좌스케치

"구원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복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10월 20일 수요일 구약성경개론 (4) 창세기 12장-여호수아서 "오경의 구원사: 약속과 성취(2)"이 열렸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며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에 선 선취하게 된다. (2면에서 계속)

농어촌교회사역부의 현장방문

미자립교회 지원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되어



국내선교1위원회 농어촌교회사역부에서는 미자립 농어촌교회 36개 (2004년 10월 현재)를 재정지원(월 20만원)하고 있다. 그동안 농어촌교회 현황을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교역자들을 통해 서면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다.

여러번 농어촌교회의 현장을 방문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부원들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미루어오던 차에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교회 중 가장 멀고 또 오지에 위치한 거문도

덕천교회(장년15명/청소년12명)를 비롯하여 순천 로뎀교회(장년7명/청소년8명), 구례 대연교회(장년14명/청소년10명), 곡성 봉조교회(장년5명/청소년14명)와 새순교회(장년15명/청소년23명), 전주 부곡교회(장애인공동체 10명) 6개 교회를 방문하였다. 방문한 모든 교회의 출석교인 대부분이 60-70대의 노인층이다. 매우 열악한 환경과 여건속에서 한 마리의 양이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계시는 교역자들의 사역현장을 보고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현지를 방문하여 보고 듣고 확인한 결과 미자립 농어촌교회의 지역적인 특성상 대부분 재정의 자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

운 상황이고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역하시는 농어촌교회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교역자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란다.

미자립 농어촌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교역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후나 도시 대형교회에서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꼭 그렇게 되어야 우리나라의 땅끝까지 뿌려진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계속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금년 방문하여 각 교회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며 오지의 농어촌교회의 청소년들을 금년 겨울수련회에 초청하여 우리 주님의교회 교회학교 청소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사역부에서는 계획하고 있다.

5-1구역,

섬김의식구를 찾아나서는 일도 우리가

늘 그렇듯이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우리 10가족은 만남을 시작했다. 교구목사(우동운목사님)의 올 한해 구역모임행동강령(?)을 들고 나타나신 구역장(남장희안수집사)의 차분한 인도로 우리는 몇 가정의 낯선 얼굴도 이미 주 안에서 한 식구였음을 확인해 가면서 한 주 한 주 모임을 이어 갔다. 우선 매 모임 때마다 예수님의 자리를 먼저 마련해 놓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소원했고 기뻐했으며 내년도 구역모임을 이끌어 갈 구역장(1)을 결정하는 일, 그리고 구역이 번식하여 나갈 때를 준비하는 구역장(2)를 정해 놓고는 그래도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며 마음의 끈을 꼭꼭 동여매는 구역원들의 모습이 뜻깊은 사랑을 물씬 느끼게 한다. 또 섬김의 식구를 찾아나서는 일에도 지나치게 마음만 앞세우는 계획보다는 우리 모두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몇 주에 걸쳐

의논하며 기도한 가운데 모 복지관과 연결되어 있는 한 자매의 병원 치료비를 보조해 주었으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형제의 생활비를 보조하기로 하면서 작은 일을 시작했다. 구역식구 모두가 기꺼이 한 학기를 마칠 때마다 간소하게나마 치루었던 종강파티를 대신하여 섬김의 식구들을 돕는 일에 찬성을 하였다. 그래도 종강파티 없음을 서운해하며 손 들고 나오는 Y권사 덕분에 구역의 모든 이벤트는 윤택하기까지 했다. 1학기 중 일명 "도너스 day"는 구역식구를 한 식구로 여기며 조금도 손색이 없다. 틈틈히

문화행사(KBS교향악단연주, 모테트합창단 공연 등) 참여도 구역식구들이 만나는 기회가 늘면서 또 다른 사랑이 열매 맺고 있다. 또 그 이면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발이 아파서 절뚝거리면서도 새벽을 지키시는 P권사와 구역식구들과 함께라면 당신의 전부를 내어 놓는 용기있는 K권사 모두가 구역의 보배이며, 묵묵히 부족한 권찰을 격려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A,B,C,D..... 구역원들이 무엇보다 귀하다.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성령이 충만한 구역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한다.

예수전도단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11월13일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 운동이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월에 맞춰 10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도운동은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11월 13일 이 기도운동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3주동안 일주일 중 3일 기도제목을 실어 30일 기도운동을 알리고자 한다.

10월 24일 일요일(10일)

스위스 취리히에 거주하는 무슬림들

스위스에 있는 교회와 개인들이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직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문화적인 장벽을 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능한 일이다.

취리히에 사는 무슬림들 대부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아픈 사람들과 노숙자들, 영적으로 갈급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취리히에 사는 무슬림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자

10월 25일 월요일(11일)

수단의 베자 종족

아프리카 수단 베자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수

단의 성도들이 있다.

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한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베자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며, 필요한 자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 베다위 언어를 문자화하고 베자 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역이 될 수도 있다. 베자 종족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문자 번역 사업과 교육의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하자.

그리스도인이 된 소수의 베자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다른 베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기도하자.

10월 26일 화요일(12일)

상 이집트 지역의 장애인들

무함마드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자.

장애 아동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전문 의사와 의료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집트의 베니 수에프, 아시우트, 아스완 지역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한 기독교 단체들을 위해 기도하자.

교회가 장애인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혹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무슬림 장애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1면에 이어서)

수요강좌스케치

“구원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복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사사기에 계속 되는 정복전쟁에서 알 수 있다. 뒤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은 땅이 없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땅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문동학 목사는 칠판에 소와 송아지를 그렸는데 모두들 그림속씨에 웃음이 터졌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짐'을 더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어미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뒤에 쟁기를 끌고 옆에 송아지는 작은 짐을 엮고 소 옆에 붙어있기만 하였던 그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송아지가 다 짊어진다 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요한 계시록 7장 15절 말씀에는 영적 전세생활 끝, 영원한 집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안에 사는 삶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안식을 '맛' 보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복'에 대한 한국적, 물질적 사고방식에서 성경적 '복'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여 성경적인 복은 관계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 뒤 짧게 정기제직회 시간을 가졌다.

교회의 수입과 지출이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교회예산의 50%가 원활하게 선교에 쓰여지고 있음을 통보했고 성도 모두가 프린트물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 폐회하였다.

(1면에 이어서)

봉사의 댓가는 기쁨, 국수봉사자 위로회 목요저녁 열려

주일새벽 5시면 비가 오나 눈이오나 상관없이 주방의 불이 켜지고 대형 솥에 물이 끓고 전날 노(老) 권사님들이 준비하신 재료와 당일 준비한 각종 재료들로 국수 국물을 만든다. 10명 안팎의 손길들이 주님의교회 새벽을 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주방의 봉사 열기는 차례차례 시간대별로 참여하는 개인 및 구역별 자원봉사자들로 인해 점점 더 해져서 예배 전후로 수없이 밀려드는 국수애호가들에게 큰 만족을 더해지게 된다. 주방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거나, 음식찌꺼기가 있는 곳곳을 말없이 훑쳐내는 작은 섬김에서 주방봉사부원들은 한결같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간혹, 김치를 테이블에 하나씩 두고 함께 먹지 않고 홀로 독점하는 분들이나 잔반(남은 음식)을 처리할 때 휴지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가져오시는

분들이나 식사 후 의자를 밀어 넣지 않고 가시는 분들로 인해 주방일이 더 많아지고, 바쁘게 더 바빠진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섬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런 것에서 오는 마음의 불편함보다 더 크다고 말하면서 함께 서로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벽5시부터 주방봉사를 하셨던 최윤철 집사가 다음달 초에 캐나다 외환은행 법인행장으로 발령이 나서 아쉬움을 나누는 송별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지난 목요일 저녁은 봉사하면서 시간대가 달라 서로를 잘 알지 못한 분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고, 서로를 축복하며 봉사의 기쁨을 재확인한 축복의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 큰 봉사를 위한 다짐의 시간이 되었다. 봉사의 댓가는 기쁨이다. 더 많은 분들이 틈을 내어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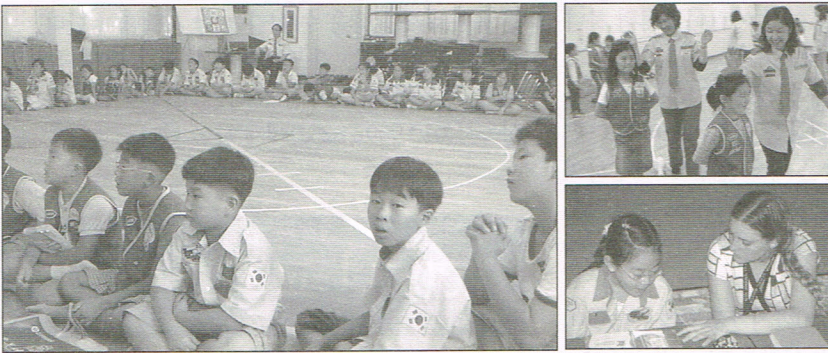
오늘 기도



하나님, 모든 사람을 향해 팔을 벌린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와나 시리즈 ②

‘주님의교회 어와나’가 곧 시작됩니다.



어와나(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이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지난호 함글함글을 통해 어와나의 정의와 주님의교회의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지난호에 이어 어와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와나의 목적과 강조점, 희망과 비전, 그리고 따르는 가치들은 무엇일까?

★ 어와나의 목적

1. HOPE!-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구원

어와나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주로 모시는 것을 희망한다.

2. VISION!-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훈련

어와나는 전 세계의 교회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제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어와나의 강조점

어와나의 강조점은 성경암송에 있다. 어와나의 클럽원들은 1년에 약 90구절의 성경구절을 암송하게 된다.

★ 어와나의 희망, 비전, 사명, 가치

Hope! 어와나의 희망

어와나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한다.

Vision! 어와나의 비전

어와나는 전 세계의 교회와 사역 기관들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통하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제자화하는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Mission! 어와나의 사명

어와나의 사명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제자화하는 리더(교사)들을 준비시키고자 통합된 프로그램, 자료 및 훈련과정을 창조하고 전파하는 사역 기관들과 동역하는 것이다.

Values! 어와나의 가치

어와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자 다음과 같은 일에 헌신한다.

- 명확하고 긴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
-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와 안내자로 삼는다.
-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대한다.
- 행하는 모든 일에 섬기는 자의 자세를 견지한다.
- 성실과 진실로써 하나님의 자원을 다룬다.
-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모든 일에 탁월성을 추구한다.

★ 어와나의 시간구성

매 주 어와나의 클럽 모임은 게임40분, 핸드북40분, 교제4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단결력을 높여주는 단복을 착용한 아이들은, 게임 전 기계양식과 선서로 매 시간 모임을 시작하며, 잘 기획되고 준비된 신나는 게임을 40분 동안 하게 된다. 게임에서 그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의 정당당당함과 동기들 간의 협력의 중

요성을 배우게 된다.

핸드북 시간을 통해서는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개인적인 신앙 상담도 받는다. 마지막 교제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듣고, 그 날 활동에 대한 개인 및 팀 시상을 하고 마치게 된다. 이 모든 순서들은 아이들이 단 한순간도 지루해 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진행이 되며, 그 모든 순서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완전하게 진행된다. 물질만능주의와 고학력지상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물으신다. 유능한 기능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지 말이다. 우리의 할 일은 온전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성숙해 가도록 아이들을 돕는 것이 아닐까?

주님의교회 어와나는 전 디렉터, 리더 교사들이 클럽 오픈을 위해 마지막 총리허설을 하고 있다. 매 주 토요일과 주일에 가지는 준비모임에서 교사들은 게임과 핸드북, 교제 시간의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교사들은 7월~10월에 걸친 장기간의 교육기간을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자신한다. 이제는 마지막 홍보와 학부모 설명회, 그리고 총리허설을 준비 중에 있다.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후원을 부탁드린다.

비전팀, 초청강연회를 3회 계획해



양희창 교장

비전팀에서는 청소년사역에 대한 비전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3회에 걸쳐 초청강연을 준비하였다. 이번 초청강연의 강사로는 청소년들을 위해 현장에서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 제천에 있는 간디청소년학교의 양희창교장, 동대문중학교의 강수환선생, 포항 한동대 김영애사모를 초청하였다. 이번 주 수요일(27일) 저녁에 양희창교장의 강연이 있고, 다음 주일(31일)에는 강수환 선생의 강연이 열린다. 초청강연이 모두 끝난 후, 11월 14일 주일은 'Vision Sunday'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사역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강연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27일(수) 오후 7:30-8:30 중예배실

『청소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양희창 교장(간디청소년학교) 10월 31일(주일) 오후 1:00-2:30 소예배실 『기독교사로서, 청소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강수환 선생(동대문중학교, YDCF대표간사) 11월 10일(수) 오후 7:30-8:30 중예배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김영애사모(한동대학교, 『갈대상자』저자)

이번주 수요일 저녁에 열리는 첫 번째 강연을 맡은 양희창 교장(사진)은 여러 대안학교들 가운데서 모델이 되고 있는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에서 섬기고 있다. 비전팀은 지난 5월 25일 간디청소년학교를 탐방하면서, 이미 양희창 교장과 한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온 교우들과 그 때의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강수환 선생은 동대문중학교 현직 교사이면서 YDCF(청소년제자선교회) 대표간사로 섬기고 있다. 지난 2004 기독교

교사대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을 통해, 많은 기독교사들에게 도전을 준 바 있다. 이 강연에는 특별히 현직교사 및 교회학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양육클래스탐방 1/성소로 가는 삶

좋은 가사는 사람을 그 뜻대로 만들어 주는 힘이 있다

10월 17일 주일 하반기 양육과정중의 하나인 ‘성소로 가는 삶’ 수업에서는 ‘신명기 31장 19절’을 기초로 한 찬송의 영적능력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강사인 문희곤 목사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에서 출발하여 찬송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였다. 찬송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과 이것은 세대를 초월하여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찬송은 가능한 성경말씀이 그대로 불리어지는 것이 좋으며, 좋은 가사는 사람을 그 뜻대로 만들어 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송 뿐 아니라 노래도 건전한 가사

의 노래를 골라 부른다면 스스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주님의 교회 협력목사이자 예수전도단 대표인 문희곤 목사가 인도하는 ‘성소로 가는 삶’은 매 주일 1시30분에 5층 중보 기도실에서 진행된다.

(1면에 이어서)

소년부, 양화진의 복음시초를 찾아

다과를 함께 하며 소년부 학생들은 양화진의 의미와 선교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순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신앙이 전파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소년부가 되었다.



시온과 살롬, 오늘 연합체육대회 열어

10월 17일 주일 1부 호산나 찬양대는 남한산성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왔고, 10월 24일 오늘 시온, 살롬 찬양대는 1시부터 약 저녁 7시까지 정신여고 운동장에서 2004년 연합체육대회를 가진다.

홍팀, 백팀으로 나뉘 파트별로 이루어진다. 경기종목은 여자부는 피구, 남자부는 축구를 하고 혼성으로 남녀노소 다같이 할 수 있는 단체게임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1시에 본부석, 현수막 설치 후 이호목사의 말씀이 있고 진행위원의 진행에 따라 추억의 기차놀이, 링던져 걸기, 단체 줄넘기, 피구, 축구, 사랑의 전도사, 줄다리기, 출발 동서남북 등의 다수 게임이 순서대로 이루어진 뒤 시상식을 가지고 저녁식사를 하게 된다. 진행위원은 시온찬양대 박혁동, 이석현, 박철수, 이중익 집사와 살롬찬양대 박석진, 김찬귀, 김정래, 최현배 집사 등이다. 시상으로는 MVP(2명), 인기상(2명), 동서남북 개인상(3명), 팀별 단체상(80명)으로 준비되었다.

지난주일 헌혈행사,

엄격해진 원칙 탓에 적은 수만이 헌혈해

지난주일 '사랑의 헌혈행사'가 오전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앞뜰에서 있었다. 혈액사업본부의 헌혈승합차량 2대에서 이루어진 이 행사는 국내선교3위원회 구제부 주관으로 행해졌으며, 작년의 약 150명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의 교인들이 참여하였다. 헌혈 가능 기준이 작년에 비해 매우 엄격해져, 헌혈하러 온 많은 성도들이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비록 작년보다 헌혈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헌혈에 관심을 보이며, 헌혈 문답에 참여한 성도들의 많은 발걸음이 이어진 뜻깊은 하루였다.

앙코르 합창단원 모집합니다

남녀성도들이 60대가 되면서 더욱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체험을 통하여 알게 한다. 앙코르 합창단은 찬양이 좋아 동아리 형태로 자발적인 모임이다.

악보 모르고 음치여도 그저 모여서 어린이들처럼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쁨을 갖는다. 건강을 주시는 날까지 감사하며 찬양드리자고 다짐을 한다. 60대의 성도님들께서 건강을 감사기도하신다면 찬양도 드릴 수 있다. 단원들은 상호친목 도모도 하며 병문안도 하고 칠순이나 팔순잔치에 축하도 부르기도 하고 천국에 먼저 가시는 분 어떻게 해야되는지 주님께 기도중이라 한다. 연습은 매주일 오전 10:35-11:30까지 5층 찬양연습실에서 있다. (연락:김주봉, 섬김이: 신정웅(011-236-0661))

양육클래스탐방 2 / 그리스도인의 기초다지기

신앙의 기본적인 맥을 잡는 기회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5층 찬양연습실에서는 정희성 목사가 이끄는 그리스도인의 기초다지기 반이 있다. 복음의 기초를 다지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양육과 정이다. 교재는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두란노)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등등 신앙의 첫발을 내딛는 성도의 궁금한 점을 공부하고 있다.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목사님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쉽게 설명을 해주었다. 수강생들이 목사님 설교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모습은 꼭 인상적이었다. 그리스도 기초다지기를 통해 신앙의 기본적인 맥을 짚어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12월1일 수요저녁, 유아세례식

유아세례가 12월 1일(수)에 있다. 유아세례 부모교육(문답포함)은 11월 7일 ~ 11월 28일까지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1층 제3집회실에서 있다. 부모 가운데 한 분

이상 세례를 받았고, 자녀가 만 2세 이하인 경우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교우는 오늘과 다음주일, 그리고 세례교육 당일오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세례교육은 부모가 모두 참석해야만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세례예식팀에서는 부모교육에 부부가 함께 참석해주시기 당부하며, 자세한 문의는 세례예식팀 혹은 정희성목사(010-9992-8252)에게 하면 된다.

2005년 교회요람 안내

1. 모든 교우들은 사진촬영에 협조 바랍니다.

11월14일까지 6주간, 1층 설만한물가 옆 계단 옆에서 매주일 오전8:30부터 오후 2:00까지 무료촬영합니다. 작년에 사진으로 내신 분도 다시 사진을 촬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적열람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1층 좌우복도에 교적부문 자료가 게시됩니다. 교회요람 전체 내용 열람을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임직자(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안수집사)를 대상으로 4층 당회원실에서 있습니다.

3. 교인표기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1년이상 교회출석이 확인되지 않는 분은 내년 요람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출석확인되면 이듬해 요람에 실립니다.
- ② 동명이인 교우의 이름뒤의 A,B는 그간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다시 조정합니다.
- ③ 타교회에서 장로임직한 경우, 이명서류를 사무실로 내어주시면 당회승인 후 협동장로로 표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직분란을 비워둡니다.

주님의교회 2005교회요람위원회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1시이후에는 유소년축구클럽 관계로 이동주차하여 주십시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테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